

3. 결 어

미국에서 실패한 MVNO 사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콘텐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content-focused business-model)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에서 모바일 콘텐츠와 다른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동전화 시장의 핵심 콘텐츠는 음성통화와 문자 등 기본적인 콘텐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Helio가 미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반면에 성공한 MVNO들을 보면 충분한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큰 규모의 선불시장을 선점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용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cost-driven business-model)을 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히스패닉계 등 선불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MVNO가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불시장을 겨냥한 MVNO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Virgin Mobile의 경우 매달 ARPU가 22달러인데 반해 120 달러 이상의 가입자 유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가입자 이탈률이 1.5~3% 임을 감안할 때, 5% 정도에 이르는 MVNO의 가입자 이탈률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향후 3G 시장의 전개 방향 등 MVNO 사업에 미치는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MVNO의 순조로운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1] Ovum(2008. 1. 25). Tough times ahead for US MVNOs.
- [2]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8. 2. 18). USA-Wireless Market-Analysis, Statistics & Forecasts.
- [3] Strabase(2008. 1. 21). 한국적 MVNO, 그 성공적 안착을 위한 차별화 전략.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주요 논의 동향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정은희
(T. 570-4215, ehjeong@kisdi.re.kr)

1. 개 요

1961년 OECD 설립 이후 '아시아 최초'의 OECD 장관회의가 다가오는 6월 27일부터 18일

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인터넷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주최, OECD 주관으로 개최된다. 금번 OECD장관회의가 더욱 주목 받는 이유는 1998년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개최되었던 캐나다 오타와 OECD 장관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리며, OECD 30개 회원국 및 17개 비회원국의 정보통신, 산업, 경제부처 장관들과 약 1,500명의 국내외 기업, 기술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 경제의 지침이 될 정책 및 실천 방안에 대해 모색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된 오늘날 인터넷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보기술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환경과 에너지 효율성, 노령화 사회 등의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리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발견 분석하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 ICCP)¹⁾와 산하 4개의 작업반²⁾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 1만 시대로 진입한 직후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IT 선진국이라는 위상답게 현재 ICCP위원회 부의장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인억 박사(2007. 3~현재), WPCISP 부의장으로 정보통신부 이상학 국제기구팀장(2007. 5~현재), WPIE 부의장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박사(2006. 12~현재), WPISP 부의장으로 성균관대학교 정태명 교수(2005. 5~현재)가 활발히 ICCP위원과 각 작업반에서 활동 중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에 개최된 제51차 OECD ICCP위원회 회의에서 포르투갈과 캐나다와 치열한 장관회의 유치 경쟁 끝에 '2008년 OECD 장관급 회담의 서울개최권고안'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본 고에서는 최근 ICCP위원회와 2008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관련 논의되고 있는 주요 논의들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1972년 2월 OECD 이사회가 과학기술위원회(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STP) 창설되었고, 1982년 4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전문적인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위원회가 창설되었다.

2) ICCP위원회 4개 산하 작업반은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 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Services Policies), 정보경제작업반(WPIE: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정보보호작업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 Privacy), 그리고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으로 이뤄져있다.

<표 1> OECD 조직구성도

OECD 이사회 및 위원회	사무국	OECD 위원회	사무국
이사회			
이사회 직속기구 • 예산위원회 • 연금위원회 • 비회원국협력위원회 • 홍보위원회 • 국제NGO연락위원회 • 개발센터자문이사회 • 지속가능개발임시그룹	일반사무국 • 이사회사무국 - 법률국 - 홍보국 • 학제적문제자문반 • 비회원국협력센터 행정총국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소비자정책위원회 산업및기업환경위원회 해운위원회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관광위원회	과학기술산업국
집행위원회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고용노동사회국
특별집행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국
경제정책위원회 경제동향검토위원회 통화 외환문제위원회	경제국	농업위원회 어업위원회	식량농업수산물국
환경위원회 화학위원회	환경국		통계국
개발원조위원회	개발협력국	OECD의 반독립적 부속기구	
공공관리위원회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지역경제고용개발협력프로그램	공공관리국	원자력기구(NEA)	
무역위원회	무역국	국제에너지기구(IEA)	
투자위원회 보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재정위원회 경쟁위원회	금융재정기업국	개발센터(D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	

<표 2> OECD ICCP 산하 작업반 주요 업무 내용 및 의장(2008. 2. 29 현재)

	주요 업무	의장(나라)
통신인프라 서비스정책 작업반(WPCISP)	인프라 구축, 접속, 요금, 경쟁, 자유화, 규제 개혁 등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권고안 작성	Mr. Vince Affleck(영국)
정보경제 작업반(WPIE)	브로드밴드 모니터링, 디지털 콘텐츠 정책, 공공정보 활성화,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 개발	Mrs. Daniela Battisti(이태리)

	주요 업무	의장(나라)
정보보호 작업반(WPISP)	핵심적 정보 인프라 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 온라인상의 신뢰 구축	Mr. Keith Besgrove(호주)
정보사회지표 작업반(WPIIS)	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한 지표에 관한 자료 개발 및 수집	Mr. Tony Clayton(영국)

2. 본 론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참가를 위해 모인 장관들은 “디지털 세상의 창조(Creativity), 신뢰(Confidence), 융합(Convergence)을 위한 정책 마련”이라는 3Cs 슬로건 아래 인터넷 시대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발견하고, 실천을 위한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과 정책권고안(Policy Framework) 등의 산출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다룬 서울선언문과 정책권고안에는 각 개별 국가와 전 지구촌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터넷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그림 1] 장관회의 슬로건³⁾



인터넷은 생산성 향상, 비용 감축, 생활 수준향상 등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또한 향후에도 창의적인 방법(Creativity)으로 경제,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관회의에서는 △ 혁신적 연구 환경을 위한 정부 역할, △ 공공부문 정보(PSI)의 대중적 이용 장려, △ 인터넷을 통한 지역정보 활용, △ 지적재산권 보호, △ 지구촌 차원에서 디지털 문맹 퇴치 등이 그

3) www.oecdministerialseoul2008.org 참조.

방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지구촌 경제의 많은 부분이 경제·사회적으로 인터넷을 기초로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사용자를 위협하는 폐해적 요소들(인터넷 사기, 각종 유해 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사용자로부터 신뢰(Confidence)를 상실해 갔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위해 △ 지구촌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핵심정보인프라(CII)보호, △ 인터넷상의 침해적 해위 방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위한 법적/기술적/정책적 틀 마련,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된 소비자 분쟁해결 방안, △ 인터넷사용에 관한 국제적 윤리 가치 준수 등을 위한 국제적 정책원칙들이 본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기술적 발전과 규제의 개혁을 통해서 데이터, 음성, 비디오를 전달하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융합(Convergence)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융합으로부터의 혜택으로 △ 정보에 대한 소비자/기업의 선택 확대, △ 투자/경쟁 확대, △ 개방형 프로토콜과 상호 호환성 전통 유지, △ 스펙트럼 관리의 효율성, △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 △ IPv6로 전환, △ 네트워크 상호접속 등과 같은 정책과 함께 인터넷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본 장관회의에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본 장관회의에서는 창의성 증진, 신뢰성 구축, 융합으로부터의 혜택(3Cs) 이외에도 미래 경제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인터넷 이용, ICT와 환경,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 될 예정이다.

〈표 3〉 장관회의 프로그램 개요⁴⁾

구분	2008. 6. 16(월)	2008. 6. 17(화)	2008. 6. 18(수)	
		이해관계자 포럼	장관회의	장관회의
오전	전체회의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전문가, 시민단체/노동계)	개회식	신뢰 구축 라운드테이블	
		개막연설 (이해관계자 대표단 보고 포함)	글로벌 인터넷 경제 라운드테이블	
	오찬	네트워킹 오찬 (참가국 장관대상)	오찬	
오후	전체회의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전문가, 시민단체/노동계)	미래 경제성과 사회복지 향상 라운드테이블	비공개 장관회의 (OECD 장관대상)	전문가 패널회의
		융합의 혜택 라운드테이블		

4) www.oecdministerialseoul2008.org 참조.

구분	2008. 6. 16(월)	2008. 6. 17(화)	2008. 6. 18(수)
	이해관계자 포함	장관회의	장관회의
오후	전체회의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전문가, 시민단체/노동계)	창의성 증진 라운드테이블	폐회식 및 기자회견
	환영 리셉션	환영 만찬	-
부대행사	-	월드 IT쇼(정보통신 국제전시회, 17~20일)	
	연계 학술 회의 및 세미나		

3. 결 어

우리나라는 몇 년 전만 하여도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1위(OECD, 2005), 디지털기회지수 1위(ITU, 2006)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보통신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적 IT 강국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최근 회원 수 1,80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해킹을 당해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건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최근 OECD 분석에 따르면 전송속도에서도 일본이 93Mbps로 세계1위이고 우리나라는 44Mbps에 머무르고 있으며, 초고속접속망 보급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독보적이지 않다.⁵⁾

OECD ICCP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를 통하여 인터넷을 제공하는 물리적 인프라, 콘텐츠,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정보통신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IT 발전 흐름을 주도하고 IT 선진국의 지위와 면모를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융합, 중요 인프라 보호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기여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1] www.oecd.org
- [2] www.oecdministerialseoul2008.org
- [3] 디지털 타임스, "인터넷 강국 위상 되찾으려면", 2008. 2. 28
- [4] 정인억·김옥준·정은희(2007). 『OECD 주요 이슈 분석 및 전략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7-43, 2007. 12.

5) 디지털 타임스(2008. 2. 28)